

아세안연구원 ISSUE PAPER

신냉전 시대 전략 동반자로서 한국과 아세안 관계

김동엽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요약

오늘날 국제사회는 신냉전이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국제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의지와 역량이 있는 강대국과는 달리 약소국은 제한된 선택지 가운데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결정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시기에 동일한 입장과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은 상호 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역사적으로 주변국에 위협적인 존재였던 적이 없었다는 점과 오늘날 지정학적 측면에서 유사한 입장이라는 점에서 신냉전 시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 번영을 추진할 가장 유력하고 합리적인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냉전 시대 전략 동반자로서 한국과 아세안 관계

김동엽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

목 차

1. 머리말	2
2. 한-아세안 관계의 시대적 변천	3
3. 신냉전 시대 새로운 한-아세안 관계	4
4.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5
5. 맺음말	6

1. 머리말

오늘날 국제사회는 큰 변화와 더불어 위기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동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동아시아에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 그리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은 오늘날 위기의 국제사회를 대변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변화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보면 크게 염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역사적 기점마다 많은 갈등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 간의 전략적 경쟁을 신냉전의 도래로 보는 시각이 많다 (Hirsh 2022).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냉전은 20세기 중후반을 관통했던 과거 냉전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의 냉전 시대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간의 정치적 이념과 경제적 효율성을 둘러싼 경쟁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1992년 소련 해체와 더불어 등장한 탈냉전 시대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세계체제는 지구화를 가속화시켰으며, 국제사회를 너무나 복잡한 이해관계로 엮어놓았다. 이러한 복잡한 세계를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단시일 내에 구별하여 나눈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과 중국 간의 세계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은 분명 탈냉전 이후 전개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에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우선 냉전과 탈냉전, 그리고 다가오는 신냉전이라는 시대 구분을 중심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아세안 관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강대국 간의 전략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냉전 시대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국과 아세안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논하였다.

2. 한-아세안 관계의 시대적 변천

한-아세안 관계는 시대적 성격에 따라 그 중요성과 특성이 결정되어 왔다. 냉전 시대 한-아세안 관계는 그다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시기 한국은 남북한 간 정통성을 둘러싼 체제 경쟁으로 인해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이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아세안 개별국가와의 교역과 투자 규모는 1980년대부터 크기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국제기구로서의 아세안과는 공식적인 관계를 수립하지 못했다. 이는 평화, 중립,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아세안의 원칙과 남북 대립, 북핵 문제, 그리고 한·미 군사 동맹과 같은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과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신윤환 2019). 물론 1967년 출범한 아세안도 이 시기에 베트남 전쟁과 인근 국가들의 내전 등 역내 문제로 인해 역외관계에 큰 힘을 쏟을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

한-아세안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은 탈냉전의 여파라고 볼 수 있다. 1989년 한국은 아세안의 부분대화상대국이 되었고, 이어서 1991년에 완전대화상대국이 됨으로써 공식적 관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관계 진전을 가능하게 한 데는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가 한몫했다. 더불어 1988년 한국 정부의 7·7선언을 통한 남북한 교차승인과 탈이념적 북방정책(Northern Policy) 추진은 아세안이 주저해 왔던 남북한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게 했다(심윤조 2019). 이 시기 아세안도 탈냉전 시대를 열며 베트남의 개방과 함께 이념 경쟁이 종식되었고, 주변국 내전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지역 기구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는 시기였다.

1991년 완전 대화상대국 관계를 수립한 한국과 아세안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로 인해 급속한 관계 발전을 이루었다. 한-아세안 관계는 1997년 정상급 외교관계로 발전하였고, 2009년 한-아세안 자유무역 협정(FTA) 타결, 그리고 2010년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아세안 관계의 눈부신 발전을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 한국과 아세안 간의 무역 규모는 약 4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32년이 지난 2022에는 2,074억 달러로 약 50배나 증가했다(한-아세안센터 2022). 오늘날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무역 파트너이며, 한국은 아세안의 제5의 무역 파트너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은 해외 투자, 노동 이주, 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아세안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21세기 세계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이 상호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한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의 현장이자 주변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에 위치한 한국은 소위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아세안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유사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양자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지역의 현안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전략적 협력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3. 신냉전 시대 새로운 한-아세안 관계

한국과 아세안은 미래의 지역 질서에 대한 비전과 추진 방향에 대해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지리적 혹은 전략적 개념에 대한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세안은 이미 2019년에 상호 존중과 포괄성, 그리고 협력의 원칙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며, 지역 문제에 있어서 아세안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강조하는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최근 포용과 신뢰 그리고 호혜의 3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유, 평화, 그리고 번영을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는 대 아세안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에서 아세안이 천명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아세안중심성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일치된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향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각 영역별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아세안이 대외관계에 있어서 핵심 요소로 간주하는 아세안중심성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시각이 등장하고 있다(이재현 2022; 배기현 2022). 이는 역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 아세안의 태도와 능력에 대한 회의에 근거한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얀마 사태는 아세안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이다. 남중국해 문제나 미·중 전략경쟁을 대하는 회원국 간의 차이는 내부 결속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50여 년 동안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주변국 간의 다자협력 체제의 틀을 제공했던 아세안의 역할은 신냉전으로 대변되는 불확실한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하다. 지역 기구로서의 아세안의 약화는 강대국 간의 전략 경쟁 속에서 약소국의 입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대 아세안 정책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세안중심성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한-아세안이 상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대국 간의 전략 경쟁이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동으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통적 안보 차원의 협력 강화는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 보건과 자연재해 문제 등과 같은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부터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슈와 관심 영역에 따라 소다자(minilateral)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아세안 체제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다자주의가 아세안중심성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Anuar and Hussain 2021).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 따라 과거 기술과 노동 그리고 투자의 수직적 상호보완 경제 관계에서 벗어나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평적 네트워크 경제 관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강대국 간의 기술 패권과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호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한-아세안 경제관계는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와 특정 국가 위주의 편향된 경제협력 관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개발협력 분야 역량을 아세안이 지역 안보와 균형발전을 위해 소지역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확대메콩지역(GMS)이나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시아 성장지대(BIMP-EAGA)와 같은 소다자 기구들과의 협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호 협력 관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연계성과 통일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아세안중심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김동엽 2022).

셋째,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은 공공외교의 확대와 더불어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하면서 2024년에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한-아세안 협력기금도 2022년 1,400만 달러에서 향후 5년간에 걸쳐 3,200만 달러로 두 배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한국과 아세안 간의 상호 교류 확대, 이해 증진, 그리고 신뢰 강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4.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의 증가한 교류의 양에 비해서 상호 인식과 신뢰의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조사에서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또한 긍정적이지도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2021년 한

-아세안센터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청년 상호인식조사에 따르면(한-아세안센터 2022), 아세안 청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90.4%로 높게 나타나지만, 한국 청년의 아세안에 대한 관심은 5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의 동남아연구소(ISEAS-Yusof Ishak Institute)에서 아세안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동남아조사보고서(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3 Survey)에 따르면(Seah, S. et al. 2023), 아세안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 또한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2023년 설문 중,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 아세안이 가장 선호하고 신뢰하는 제3국은 어느 국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3.2%)은 EU(42%), 일본(26.6%), 인도(11.3%), 호주(9.3%), 영국(6.8%) 다음으로 선택국가 중 최하위를 나타냈다. 아세안 여론 주도층의 한국에 대한 신뢰도의 추이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021년 조사에서 한국은 3.2%를 얻어 7개 선택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하였으며, 2022년 조사에서는 6.8%를 획득하여 6개 선택국가 중 인도를 제치고 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다시 2023년 조사에서 3.2%로 떨어져 최하위로 밀려났다. 이처럼 저조한 신뢰도는 한국 정부의 대 아세안 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킵 2020).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한-아세안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9년에 한-아세안센터를 설립하였고, 2017년에는 아세안문화원을 개원하여 활발한 상호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한-아세안 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과 아세안 간에는 상호 이해와 인식의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인식의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상호 교류의 기회를 더욱 많이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쌍방향 문화 교류의 확대에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문화적 교류와 융합을 통해 상호 공유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미래지향적 새로운 공동의 문화를 창조하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강화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신냉전이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함께 대처해 나갈 든든한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오늘날 국제사회는 신냉전이라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국제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의지와 역량이 있는 강대국과는 달리 약소국의 경우에는 제한된 선택지 가운데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결정을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시기에 동일한 입장과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은 상호 간에 큰 힘

이 될 것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동일하게 주변국에 위협적인 존재였던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신냉전 시대에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 번영에 기여할 가장 유력하고 합리적인 전략적 동반자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공식 관계 수립 이후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크게 증진해 왔다. 오늘날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이처럼 양적으로 성장한 한-아세안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질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아세안이 형식적인 만남과 피상적인 선언을 넘어 보다 긴밀한 상호 협력이 가능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4년은 한-아세안 공식 관계 수립 35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2009년과 2014년 그리고 2019년에 한-아세안 정상들이 한국에 모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아세안 정상들이 역외 국가에서 세 차례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곳은 한국이 최초이며, 이는 한-아세안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좋은 기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에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유치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신냉전 시대 한-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비전과 행동계획을 발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엽. 2022. "한국의 새로운 대 아세안(ASEAN) 협력 전략: 중견국 외교를 통한 소다자주의적 접근." 『아시아연구』 25(1): 251-270.
- 배기현. 2022. "아세안 2021: 흔들리는 아세안 중심성과 가치회복의 노정." 『동남아시아연구』 32(2): 1-33.
- 신윤환. 2019. "한-아세안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왔나." 최원기, 서정인, 김영채, 박재경 엮음. 『한-아세안 외교 30년을 말하다』 서울: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 심윤조. 2019. "한-아세안 외교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최원기, 서정인, 김영채, 박재경 엮음. 『한-아세안 외교 30년을 말하다』 서울: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 이재현. 2022.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전략." 『이슈브리프』 2022-26.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 퀵, 첸취. 2020. "신남방정책에 대한 동남아시아의 시각: 3중 협력관계의 발전 전망." 『해외의 시각으로 본 신남방·신북방정책의 평가와 과제』 KINU 연구총서 20-15. 서울: 세일포커스(주).
- 한-아세안 센터. 2022. 『2022 한-아세안 통계집』 서울: 한-아세안 센터.
- Anuar, Amalina and Nazia Hussain. 2021. Minilateralism for Multilateralism in the Post-Covid Age. *Policy Report*, Jan. 2021.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 Hirsh, Michael. 2022. We are now in a global cold war.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22/06/27/new-cold-war-nato-summit-united-states-russia-ukraine-china/>. (검색일 2023.05.01.)
- Seah, S. et al. 2023.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3 Survey Report*. Singapore: SEAS-Yusof Ishak Institute.

필자소개

김동엽 교수는 현 부산외대 부교수이자 아세안연구원 원장이다. 2003년 필리핀국립대학교에서 1990년대 한국과 필리핀의 통신산업 자유화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해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SCOPUS 등재지인 *SUVANNABHUMI: Multi-disciplinary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의 발행인이며, 한국아시아학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다. 또한 KCI 등재지인 『아시아연구』 편집위원장과 (사)한국동남아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국내외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출판하였으며, 대표적으로 "Transforming Western Democracy in Southeast Asia: The Case of Lanao del Sur, the Philippines"(2018, 논문), *ASEAN-Korea Relations: Twenty-five Years of Partnership and Friendship*(2015, 공저), 『나를 만지지 마라』(2015, 번역), 『필리핀의 한국인 이주자들: 역사와 정체성』(2021, 저서) 등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특히 필리핀과 한국, 그리고 한-아세안 관계 등이다.



연구원 소개

<아세안연구원>은 1997년 아시아지역연구소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동남아시아연구소(2007~2021), 동남아지역원(2010~2019)이란 연구소명으로 활동하다가 아세안공동체의 출범과 한-아세안 관계 심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2019년에 현재의 연구소명을 변경하였다. <아세안연구원>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총체적 단위로서의 동남아시아의 인식과 구성」이라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 지원사업 해외지역연구에 선정되어 총 10년간(2009.09~2019.08)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했다. 현재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전략적지역연구형)에 선정되어 향후 6년간 「아세안 소지역(subregion) 연계를 통한 신남방정책 고도화 전략 연구」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강대국 간의 경쟁 심화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아세안을 향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아세안연구원>은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년에 두 번 SCOPUS 등재 국제영문학술지(SUANNABHUMI)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과정(동남아시아학 석사 및 박사)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중확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발행일자

2023년 5월 31일

발행처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주소: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센터 A504호

이메일: iseas2@bufs.ac.kr, kiasbufs1990@gmail.com

홈페이지: <https://iseas.bufs.ac.kr/>

전화: 051-509-5670(+82-51-509-5670)

팩스: 051-509-6649(+82-51-509-6649)

본 이슈페이퍼는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이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지원 사업(NRF-2021S1A5C2A01087076) 지원을 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연구원 이슈페이퍼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들은 아세안연구원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